영광·곡성군수 재보궐선거 레이스 본격 돌입

선관위, 예비후보 접수 시작

첫날 영광 2명·곡성 3명 등록
전직 군수 등 10여명 인사 거론
조국혁신당 가세…각축전 예고

오는 10월 16일 치러지는 영광·곡성군수 재선거가 예비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레이스에 돌입했다. 창당 후 처음으로 참여하는 조국혁신당의 선전 여부에도 귀추가 주목된다.

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예비후보 접수 첫날인 전날 영광 2명, 곡성 3명 등 모두 5명이 예비후보로 정식 등록했다. 앞서 영광·곡성은 각각 강종만 전 영광군수, 이상철 전 곡성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 직위상실형을 받아 재보궐 선거가 치러지게 됐다.

영광에서는 △조국혁신당 정광일 전 재외동포재단 사업이사 △진보당 이석하 영광군지역위원장이 접수했고, 곡성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유근기 전 곡성군수 △조국혁신당 손경수 전 죽곡면 자치회장 △무소속 이성노 전 목포대 교수가 등록을 마쳤다.

이들 예비후보는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등 일정한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또 후원회를 통해 선거비용제한액의 50%까지 후원금 모금도 가능하다.

영광·곡성군수 재선거에는 예비후보 등록자를 포함해 10명 안팎의 인물이 거론되고 있다.

국민의힘·개혁신당은 출마 예정자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영광에서는 강필구 전반기 군의회 의장, 강진의료원장인 정기호 전 군수 등의 불출마로 민주당에서 4명의 후보가 출마할 전망이다.

곡성에서는 전직 군수와 도의원, 대학교수, 주민자치회장 등 8명이 자천타천 거론되고 있다. 이들 모두 각 정당의 공천을 기다리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는 총선에서 돌풍을 일으켰던 조국혁신당이 두 곳 모두 후보를 내세워 호남 맹주 더불어민주당과의 한 판 승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4월 총선 당시 곡성에서 39.88%, 영광에서 39.46%의 비례득표율을 기록한 만큼 "해볼 만 하다"는 게 조국혁신당의 내부 판단이지만, 최근 창당 이후 최저치의 지지율(9.2%·리얼미터 여론조사)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은 고민거리다.

전남지역 한 정가 관계자는 "조국혁신당은 총선 직전 창당된 정당으로는 이례적으로 많은 의석을 가져갔다. 다만 그에 비해 '임펙트'가 없다"며 "당선 유무를 떠나, 더 많은 정치인이 나와야 한다. 이번 보궐선거에서 각인을 시켜줘야 2년 뒤 지방선거에서 힘을 낼 수 있다. 특히 영광은 '인물이 없다'는 인식이 있는 만큼, 의미있는 결과도 노려볼만 하다"고 말했다.

한편 10·16 재보궐선거는 예비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9월 26~27일 후보자 등록, 10월3월 선거운동 개시, 같은달 11~12일 사전투표, 16일 본투표(오전 6시~오후 8시)로 진행된다.

정성현 기자 sunghyun.jung@jnilbo.com

김영록 "댐 수몰지역 최소화해야"

환경부장관과 기후대응댐 논의
"주민 소통·규제 완화 함께 노력"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5일 김완섭 환경부장관과 신규 기후대응댐 후보지(안)인 순천시, 화순군, 강진군과 추진 방안을 논의하고 수몰지역 최소화, 주변 지역 지원사업비 대폭 확대 등을 요청했다.

환경부는 지난달 30일 기후위기로 빈번해진 극한 홍수와 가뭄, 미래 물 수요 등에 대응하기 위해 신규 기후대응댐 후보지(안) 14곳을 발표했다.

이날 김완섭 장관은 2022년 극한가뭄으로 역대 최저 저수율(본댐기준 17%)을 기록한 주암댐을 방문해 후보지(안)에 선정된 순천·화순·강진 시장·군수와 면담을 갖고, 가뭄대책 및 향후 건설될 신규댐 건설 추진 방향을 협의했다.

김 장관은 "환경정책의 최우선 순위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라며 "앞으로도 지역과 적극 소통하면서 기후대응댐 사업을 속도감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과 호우 등으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피해가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의 신규 댐 건설 계획을 환영하고, 영·섬유역생·공용수 중장기 대책에 반영된 장흥댐~주암댐 수원 연계사업 추진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기후대응댐에 대한 정보와 자료 등이 부족한 만큼 지자체와도 자료 공유를 비롯해, 실질적으로 물을 공급하는 시군 주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수계관리기금을 활용한 주민 복지 향상, 생활 여건 개선, 다양한 수자원 확보를 위한 협조 등을 요청했다.

김 지사는 "환경단체, 주민과 주기적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는 등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댐 건설에 따른 수몰지역 주민 지원과 안개 및 서리 피해 대책, 재산권 행사 제한 및 각종 규제 등의 완화를 위해 환경부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는 이날 지역 현안사업으로 △수계관리기금 운용 개선 △탄소중립 선도도시 공모사업 선정 △지방하천 국가지원 확대 등도 건의했다. 오지현 기자

김완섭 환경부장관이 5일 순천 주암댐 전망대 회의실에서 김영록 전남도지사 등과 기후대응댐 추진계획을 논의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진일보
@jnilbo
진일보 인스타그램
#호남대표미디어 #진일보 #전남일보_뉴스서비스

전남도, 드론·항공영상 공간정보 44종 개방

전남도는 최신 드론영상, 항공영상 등 공개가 제한된 공간정보 44종을 디지털 트윈, 자율주행 등 디지털 신산업 분야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보안 처리 후 개방한다고 5일 밝혔다.

그동안 공개가 제한된 공간정보는 해상도가 매우 정밀하거나 좌표 등 위치정보가 포함된 것으로, 보안상의 이유로 공간정보 사업자나 위치정보 사업자에 한해 제공했다. 드론을 활용해 자체 제작한 고정밀 자료 20종과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제공받은 위성영상 4종, 항공영상 12종, 전자지도 8종 등 보유 중인 공간정보가 이에 포함된다.

하지만 최근 디지털 신산업 분야에서 공개제한 공간정보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다양한 사업자로부터 지속적인 개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국가공간정보기본법' 등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 민간 개방 근거가 마련됐다.

전남도는 개정법과 관련 조례·규정 등을 면밀히 검토해 자체 보유한 공간정보를 민간에 개방,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보다 정확한 공간정보를 적극 활용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공개제한 공간정보 제공을 바라면 전남도 토지관리과에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신청 방법과 공개제한 공간정보 보유 목록, 신청서 등은 전남도 공간정보 참여마당(https://map.jeonnam.go.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앞으로는 '전남도 공간정보 참여마당' 고도화를 통해 최신 공개제한 공간정보 촬영 요청을 받아, 도민이 필요로 하는 지역의 최신 영상도 직접 촬영해 열람할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를 할 예정이다. 오지현 기자